

몬페레이한인교회 마을 모임 (2026년 8월 30일)

1. 환영(Welcome): 서로 인사하기
2. 경배와 찬양(Worship): 오직 예수뿐이네
3. 말씀 리뷰(Word): 롯기 강해(4) - 은혜로 나아가는 길 / 롯 1:19~22

나오미와 롯은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과 박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떠났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가 나오미나”라는 말에는 “정말 저 사람이 예전에 알던 나오미가 맞는가?”라는 안타까움과 탄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사람들의 말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실패와 아픔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때 탕자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점입니다. 22절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은 한때 기근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추수가 시작되는 땅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다시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기가 유월절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어린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빈 인생을 다시 채우시고 기근의 자리를 추수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 질문에 답해봅시다.

1. 나오미는 자신의 실패와 아픔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할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기 위해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2. 나오미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3. 탕자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4.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때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 길입니다.

- 내가 자존심이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 수 있습니까?

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빈 인생을 채우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 나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기 위해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어 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를 내려놓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근의 자리를 추수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4. ‘감사’&‘기도’ 제목 나누기

오직 예수 뿐이네

소진영

D A/C# Bm7 F#m7 G D/F# D/E E7 G/A A

은혜아니면-살아 갈수가-없네 호흡마저도-다 주의것이니-- -

5 D A/C# Bm7 D/A G G/A D C/D

세상평안과- 위로 내게없-어 도 예-수 오직예수뿐- 이 네

9 G A D Bm7 G A7sus4 D C/D

크 신 계- 획 - 다 볼수도 없고- 작은 - 고난- 에 지 쳐도-

13 G A D A/C# Bm7 D/E E7 A7sus4

주 께 묶- 인 - 나 의모든삶- 버티고 - 견디 게 하 시네 -- -

17 D A/C# Bm7 F#m7 G D/F# D/E E7 G/A A

은혜아니면-살아 갈수가-없네 나의모든것-다 주께맡기니-- -

21 D A/C# Bm7 D/A G A7sus4 D

참된평안과- 위로 내게주-신 주 예-수 오직예수뿐- 이 네